

초록번호 03-2

제 목	국 문	비만지수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와의 관련성		
	영 문	Relationship between anthropometric indices an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최봉근, 손락성, 송종일, 최중명, 윤태영, 박순영, 유동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Bong-Keun Choe, Lak-Seong Son, Jong-Il Song, Joong-Myung Choi, Tai-Young Yoon, Soon-Young Park, Dong-Joon Lew <i>Dep. of Preventive Medicine, School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i>		
분 야	역학	발 표 자	최봉근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98 년 월			
<p>1. 연구 목적</p> <p>비만 또는 과체중은 최근들어 단일 질환으로서는 가장 심각하고 다양한 보건문제를 유발시키는 질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으며, 직접, 간접적으로 사망률을 증가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NHAES II)의 보고에 따르면 종족, 연령, 환경에 따라 성인의 과체중 유병율은 최소 6%에서 61%까지 보이고 있으며, 해마다 이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p> <p>우리나라의 경우 비만의 정도는 적으나 이러한 질환의 원인이나 또한 영양 및 식이의 서구화 패턴에 의해 향후 비만의 유병률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현재 비만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격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비만 역학조사는 전무한 상태에 있다. 또한 비만 분류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 제시도 없는 실정으로 연구자마다 제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비만분류를 하고 있어 보고되고 있는 자료의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p> <p>이러한 상황에서 비만을 진단하는, 보다 간편하고, 타당성이 높은 방법의 개발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에 의한 비만판정과 임피던스에 의한 방법(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BIA)의 타당성과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혈압과 혈중지질치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p>				

2.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한국인 악성종양의 발생률 추정 및 관련 위험요인 규명을 위한 역학적 연구에서 대상이 되고 있는 충주시 일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전 교육된 조사원이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신체계측 및 체지방을 측정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직업과 신체활동, 농사력과 농부중, 농약사용, 음주, 흡연, 식생활 습관, 질병의 과거력, 암검진의 필요성, 여성의 출산력과 남성의 전립선 증상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설문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무응답한 항목은 조사원이 전화를 통하여 추후 확인하였다.

신체계측은 신장, 체중,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둔부둘레(hip circumference) 등을 측정하였고, 체지방의 측정은 Bioelectrical Impedance Fatness Analyzer GIF-891를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97년도에 총 119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연령과 비만지수와와의 관계는 체질량지수(BMI)와 WHR(waist hip ratio)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혈압과의 관계에 BMI, WHR, Fat(%), 혈중지질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관계를 보였다.

혈압과 체지방량의 관계역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흔히 비만분류로 이용되어왔던 BMI를 기준으로 체지방량(FAT %)를 비교하였을 때는 각 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고찰

현재 우리 나라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비만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비만인구의 증가는 중대한 공중보건학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만인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정상의 경우보다 약 3배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중의 일부인 혈압과 혈중지질치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사망률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이미 확립되고 있는 코호트를 통하여 장기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